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어려움 해결 총력

소진공 '혁신형 일자리' 창출 비전 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가운데)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왼쪽 두번째) 등이 3일 공단 본부에서 가진 비전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도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3일 대전에 위치한 본부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성장과 활력으로 서민경제의 내일을 여는 희망·행복의 동반자로 나아간다'는 공단 비전을 선포했다.

아울러 공단의 5대 핵심가치인 ▲변화와 혁신 ▲도전 ▲협력 ▲상생 ▲고객현장을 담은 슬로건 '열정 +5℃! 국민경제의 내일을 봅니다'를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가 찾는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왔다"며 "이제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선 김 이사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박정원 서울지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경기 수원 못골시장 '줌마불평합창단'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우정사업본부, 소형 전기차 50대 3월 시범운영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올해 도입될 예정인 초소형 사륜전기차 등 우편차량이 지난 2일 광화문에서 희망과 행복을 배달하며 안전운전을 다짐하는 거리 퍼레이드를 했다.

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택배 업무에 이같은 소형 전기차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현재 집배원들이 이용하는 오토바이는 과거의 우편 배달을 위한 운송수단이다. 현재 택배 위주의 운송수단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난해 11월 "드론과 전기차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인용 전기자동차를 도입하면 집배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고, 택배량도 늘릴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특히 냉난방 장치도 있어 집배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할 수 있다.

우본은 3월부터 50대의 전기차를 주요 우체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우본 관계자는 "지역별 우정청을 통해 수요조사를 받고 희망 우체국 위주로 전기차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편차량 거리 퍼레이드. / 우정사업본부

시범운행 하는 전기차 도입은 구입이 아닌 리스(임대)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스포츠용구조합,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기부금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평창조직위원회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스포츠 관련 중소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됐다. 권오성 스포츠용구협동조합 이사장(왼쪽)이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

현대차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 후원

현대자동차가 한중 대표 바둑기사의 대결로 주목받는 '2018 해비치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을 공식 후원한다.

현대차는 13일 해비치 호텔 앤드리조트 제주에서 열리는 이 대회를 후원하고, 대회 우승자에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코나'를 증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세돌 9단이 승리할 경우 국내에서 '코나'를, 커제 9단이 승리할 경우 중국 현지에서 중국형 모델 '엔시노'를 선물한다. 아울러 현대차는 대회 현장에 올해 첫 신차, 신형 벨로스터(위장 랩핑카)를 전시하고 개막식 현장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현대차는 '신형 벨로스터'에 적용될 신기술 '사운드하운드(대화형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활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응원 이벤트'에서 선정된 응원 메시지와 음악을 개막식 현장에서 이세돌 9단과 커제 9단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멋진 대결을 펼친 세기의 스타 바둑기사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후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신점[神占] 운세 1월 4일 (음 11월 18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하세요. **60년생**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72년생** 뜻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4년생** 벌이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9년생 소원도 풀리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61년생** 만사가 꽉 막혀 있습니다. **73년생**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85년생** 이성형의 상대를 찾아 나서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50년생 문제가 하나씩 해결 됩니다. **62년생** 어려운 시기는 무사히 잘 넘겼으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74년생** 큰일에 몰두하세요. **86년생** 애정운이 좋아 기쁜 하루가 됩니다.

51년생 여행을 하면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63년생** 낙천적인 성격에 술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75년생** 풀리지 않던 일도 풀리는 좋은 시기입니다. **87년생**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52년생 신의를 저버리면 큰 해를 당합니다. **64년생** 경솔한 태도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76년생** 신의를 두텁게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88년생** 사방이 험한 산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53년생 결실이 만족치 못합니다. **65년생** 위험을 슬기롭게 이겨 낼 수 있습니다. **77년생** 능력을 십분 발휘해 볼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89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맺어지겠습니다.

54년생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겠습니다. **66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겠습니다. **78년생**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90년생** 주변 어느 곳에 가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55년생 금전상 약간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67년생** 밖으로 나간다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79년생**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91년생** 늘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56년생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68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80년생** 일이 여의치 않으니 마음에 번민이 많습니다. **92년생** 지출을 줄이는게 좋습니다.

57년생 너무 잘해주는 이들을 주의하세요. **69년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81년생**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93년생** 점차적으로 원하던 뜻을 이루게 됩니다.

58년생 부지런히 뛰어다니면 이득이 옵니다. **70년생**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82년생** 모든 것이 막혀있습니다. **94년생** 추진중인 일이 오히려 역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9년생 세상이 귀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71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83년생** 시기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95년생** 여행을 떠나 기분 전환하는 것이 길합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1						5	
			9		5			
		9		7		8		
			2	9	4			
		7				2		
3			8		7			9
1		2	3		9	6		4
			4		1			
	6						1	

4								
	9	8				4		3
	5	7		3		2	9	
			1		4	8	2	
			7		6			
			3		9	7	6	
	2	9		1		3	4	
	8	6				9		1
1								

스도쿠 정답

4	3	1	2	9	8	6	5	7
2	9	8	6	7	5	4	1	3
6	5	7	4	3	1	2	9	8
7	6	3	1	5	4	8	2	9
9	4	2	7	8	6	1	3	5
8	1	5	3	2	9	7	6	4
5	2	9	8	1	7	3	4	6
3	8	6	5	4	2	9	7	1
1	7	4	9	6	3	5	8	2

2	1	3	6	4	8	9	5	7
8	7	6	9	2	5	1	4	3
5	4	9	1	7	3	8	2	6
6	8	1	2	9	4	7	3	5
4	9	7	5	3	6	2	8	1
3	2	5	8	1	7	4	6	9
1	5	2	3	8	9	6	7	4
7	3	8	4	6	1	5	9	2
9	6	4	7	5	2	3	1	8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인생의 好雨時節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 우연히 호우시절이라는 글귀를 보게 되었다. 호우시절(好雨時節)이라는 말은 당나라 때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두보(杜甫)가 '춘야희우(春夜喜雨)'라는 시의 첫 구절인 '호우지시절(好雨知時節)'에서 따 온 것이다. 때를 알고 내리는 좋은 비.. 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일인가? 같은 비여도 그치기를 바라는 홍수 때의 비가 아닌 필요할 때 내려주는 좋은 비 바로 서우(瑞雨)인 것이니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고마운 은혜로운 비인 것이다. 두보가 난리를 피해 잠시 성도에 머무르던 곳을 '두보초당'이라 했고 그곳에서 그는 농사를 지으며 지냈다 한다. 지난겨울이 가물어 걱정하던 와중에 밤사이 내린 봄비에 마른 땅들이 해갈을 하니 초목은 윤택하여지고 마음 역시 반가움과 고마움으로 가득 차오름을 이렇게 잔잔하나 정겹게 묘사한 것이다.

사주 학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호우시절이란 대운(大運)이 좋게 펼쳐 나가는 시기이다. 인생의 좋은 계절에 비유할 수가 있겠고 살아가는 와중에 나를 도와주는 희신(希神)이나 좋은 신 살로 작용하는 오행의 도움이 있는 때를 인생의 호우시절이라 말한다. 뜻하지 않던 제도의 변경이나 법의 제정 등으로 걱정스러운 사태가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마른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일들이니 마치 두보가 읊은 춘야희우와 같은 일들이 아니겠는가?

자연이야 천지기운의 이치가 있어 이에 한 치도 벗어남이 없다 하거늘 인생사 에 있어 호우시절을 만드는 이치는 선업(善業) 외에 답이 없다. 모든 악함을 짓지 말고 여러 선함을 받들어 행하라는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衆善奉行)'의 이치 말이다. 아직 봄비는 멀지만 두보의 춘야희우(春夜喜雨)를 마음에 읊어본다. 나름 선함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인생의 호우시절을 이미 지나친 사람들은 물론 아직 오지 않은 호우시절을 맞이할 사람들을 위해..그러나 매일 매일이 우리 인생의 호우시절이기를 역시 기대하며.."호우지시절 당춘내발생 수풍잠입야 윤물세무성(好雨知時節 當春乃發生 隨風潛入夜 潤物細無聲) 야경운구흑 강선화독명 효간홍습처 화중금관성(野徑雲俱黑 江船火明 曉看紅濕處 花重錦官城)" 풀어 보면 이렇다. "단비는 시절을 알아차려 봄이 되니 내리네. 바람 따라 살그머니 밤에 들어와 만물을 적시되 가늘어 소리도 없구나. 들길은 구름이 낮게 깔려 어둡고 강 위에 뜬 배만 불빛 비치네.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금관성에 꽃들이 활짝 피었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